

광주매일신문·펠리체 솔리스트 성악회 주최 日동경 고향의 집 개관 3주년 후원 음악회 '사랑나눔 콘서트' 대성황

빛고을서 클래식 가교 삼아 '日고향의 집' 알렸다

뜨거운 호응에 입석 관객까지...400여명 참석
전 출연진 재능 기부·고품격 공연 '감동 물결'
7월 현지서 2회 공연·11월6일 대규모 행사도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됐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재일한국인의 양로원인 '고향의 집'에 대해 알고 느끼는 자리가 마련됐다. 다름 아닌 클래식 공연을 통해서다.

광주매일신문과 펠리체 솔리스트 성악회(대표 김미옥)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일한국인 양로원 돕기 '사랑나눔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일본 동경 고향의 집 개관 3주년 후원 음악회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광주시·광주매일신문·광주예총이 주최하고 펠리체 솔리스트 성악회·새공생복지재단·일본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이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50여명 이상은 입석으로 자리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오병인 목포공생원 상임대표를 비롯, 천정배 국회의원, 김경전 전 국회의원,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 박항 광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이근우 변호사, 오대석 조선대 법대 학장, 문기호 목포대 법대 학장,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황인원 인스타그램 대표, 김유미 전 광주시립발레단장, 김미숙 조선대 교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 시작에 앞서 특별한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전 출연진이 객석으로 나와 관객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



광주매일신문과 펠리체 솔리스트 성악회가 지난 11일 오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마련한 일본 동경 고향의 집 개관 3주년 '사랑나눔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은 이날 공연에 출연한 성악가들.

을 전달하면서, '축배의 노래'로 본격적인 공연의 막을 열었다.

이날 공연을 총괄기획한 김미옥 소프라노를 비롯한 서울·광주지역의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랐다.

메조소프라노 강양은, 소프라노 김미옥, 테너 윤병길, 바리톤 방대진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유명 성악가들이 클래식의 향연을 선사했다.

광주 공연을 마친 음악가들은 오는 7월5-6일 일본에서 열리는 순회공연에도 참여한다. 5일은 일본 동경 고향의 집에서, 6일은 일본 동경 요도바시 교회에서 '사랑나눔 콘서트'를 연다. 특히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음악가들은 개

인 부담으로 현지에서 체류하며 재능기부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또한 첫 '고향의 집'이 1989년 개관한 후 올해 30주년을 맞는 만큼 오는 11월6일에는 일본에서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관계자·음악가 등 300-400명이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행사를 마친 후 김미옥 소프라노는 "클래식 공연에 정말 수준 높은 관객들이 함께 모여 줄길 감동스런 자리였다. 광주에서 열린 일본 '고향의 집' 후원음악회가 이처럼 많은 성원 속에 열리게 돼 매우 행복하고 기쁘다"며 "어린

이부터 어른들까지 클래식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고 일본 '고향의 집'에 대해 다시 한 번 배우고 생각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프라노는 "좋은 일을 하는 데엔 좋은 사람들의 향기가 모이는 것 같다"며 "작은 마음이지만 참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줘, 이번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고향의 집'은 재일한국인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지 13일 만에 고독사로 발견된 것이 계기가 돼 30년 전인 1989년 오사가 사카이에 문을 열었다. 현재는 오사가, 고베, 교토, 동경 등 5곳으로 늘어났다. /정겨울 기자

베니스비엔날레서 광주비엔날레 홍보 성료

김선정 대표, 심사위원 활동도

'2019베니스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베니스 현지에서 2020광주비엔날레 해외 홍보 설명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설명회에는 국내·외 유명 미술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7시30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국내외 유명 미술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비엔날레 해외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선정 대표이사과 2020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인 데프네 아야스(Defne Ayaş), 나타샤 진발라(Natasha Ginwala)를 비롯해 역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지낸 마리아 린드(Maria Lind), 마미 카타오카(Mami Kataoka)가 참석했다. 또한 이영우 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유진탄(Eugene Tan) 싱가포르 국립미술

관장, 스테파니 로젠탈(Stephanie Rosenthal) 마틴그로피우스바우 미술관장 등 국내외 유명 미술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재)광주비엔날레는 내년에 개최되는 2020광주비엔날레 행사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내년 전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을 연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사회 저항이 생긴 사례를 역사적으로 소개하며 5·18의 의미를 예술로 승화·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비엔날레 본연의 혁신성, 진보적 광주정신, 현대미술의 다원성을 결합한 전시 구현을 목표로 시각 문화와 인문사회 분야를 연계한 문화실천의 장 역할을 강화하기로 해 국제 미술계의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 김선정 대표가 '미술계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베니스비엔날레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심사활동을 벌이며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한데 이어



왼쪽부터 데프네 아야스, 김선정 대표이사, 나타샤 진발라.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한국 미술을 해외에 알리고 대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다각화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선정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세계 대표 국제 미술제인 베니스비엔날레에서 2020광주비엔날레 홍보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국내외 우수한 미술계 인사들이 참여해 국제적 네트워크와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품격 높고 경쟁력 있는 전시로 국제 미술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겨울 기자

광주문화재단, 야외공연창작지원사업 공모

22-24일 방문 접수

광주문화재단은 광주 도심 내 야외무대에서 공연 가능한 단체를 모집하는 '2019야외공연창작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공모는 거리예술의 특성을 담은 창작 작품으로 7-10월 중 야외에서 공연 가능한 지역 전문공연예술단체 5개 내외를 선정해 단체별 3천만원~4천만원 등 총 1억6천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형식, 내용 등이 야외공연에 맞게 기획된 작품을 우선지원하며, 실대공연을 단순히 야외로 옮긴 형태는 지양한다.

공연장소는 ▲필수 장소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부대 주경기장 혹은 수영대회 선수촌 ▲선택 장소는 '2019광주프린지페스티벌' 무대, 수완호수공원, 풍암호수공원 등 광주 도심 내 야외무대면 된다. 공연 횟수는 필

수장소 2회, 선택장소 5회 이상으로 단체별 총 7회 이상 공연해야 한다.

공모 지원자격은 2년 이상(2017년부터) 공연실적이 있는 광주 소재 전문문화예술 법인 또는 등록 예술단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지원장르는 거리극, 무용, 음악극, 마임, 서커스, 전통연희, 인형극, 오브제극, 복합장르 등이다. 모든 공연 구성에 공연자 2인 이상, 공연시간은 30분 내외로 구성해야 한다.

공모 신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혹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22-24일 이메일 제출(gjcf4@hanmail.net) 후 재단 문화사업실 문화예술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제외).

사업설명회는 오는 15일 오후4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문의 062-670-7912) /정겨울 기자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삼계탕, 소꼬리곰탕

한정식 1인:2만 5천원부터~10만원까지 <맞춤형 주문가능>

저녁특선 2만원(3인 이상)

점심특선 한정식(1인 20,000원, 3인 이상 18,000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동명교회 옆)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알파 카피 센터 광주보건대점의 새로운 운영자를 찾습니다!



매각 합니다

보증금 - 3,000 만원
물 품 - 3,000 만원
기 계 - 2,500 만원
권리금 - 2,500 만원

1억 1,000 만원

알파 카피 센터 광주보건대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419번길 55 보건대 정문

문의 : 010-4821-8929